

상처 남겼지만 ‘野 통합정당’ 향해 드라이브

■ 민주당 전대 막장 드라마속 통합 의결 ... 향후 진로는

‘대의원 30%+당원·시민 70%’ 선거인단 구성

19대 총선 이끌 통합지도부 늦어도 年初 선출

민주당 야권통합(합당) 결의의 정당 대회가 감동 없는 막장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이는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반대 세력 간 소통 및 정치적 부재가 가져다준 결과라는 평가다.

하지만, 통합이 결의됨에 따라 통합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는 물론 의결정족수 논란으로 긴급 당무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통합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축제 속에 통합을 의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전대가 폭력사태로 얼룩지는 등 극도로 분열된 자화상을 남기며 상처투성이 속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 이유는 손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통합 창당 구상을 밝힌 이후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쥐고 원칙과 절차를 맞추기보다는 서둘러 통합을 밀어붙인 탓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손 대표 등 지도부의 소통 능력 부재가 이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도 원인으로 꼽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통합 추진과

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지도부의 통합 방식에 정면으로 맞서며 이번 임시 전당대회 사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향후 통합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자체 수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오는 17일 시민통합당 수임위원회 등과 통합수임위원회를 열어 합당 결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대에서 통합을 결의한 이후부터 수임기관 합동회의의 결의시까지 지도부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최고위원회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 있다.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통합이 결의되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은 해산 및 새 통합정당 구성 순서를 밟게 되며 수임기관은 합당 결의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 임시 지도부가 꾸려져 올 연말 내지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 전대까지 당을 이끈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양당은 ‘대의원 30%, 당원·시민 70%’로 선거인단을 구성, 통합전대에서 통합정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의원은 양당이 같은 숫자로 구성



하고, 민주당의 당비를 내는 당원 12만명은 별도의 선거인단 신청 절차를 하지 않아도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통합정당 최고위원회는 선출직 6명, 지명직 3명, 당원직 2명으로 하되 지명직에는 노동계 1명을 포함해 여성·지역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양당은 통합정당의 새 지도부가 신년 정국을 주도하도록 연내에 통합전대를 치르코자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특히 임시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통합정당 새 지도부 선출 규정을 놓고 수임기구 대표들 간 합의해야 할 쟁점이 산재해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야권 통합을 결의하기 위한 열린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이 진통 끝에 의결되자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기 민주당 통합수임위원회 위원장 “당원 다독일 통합안 만들겠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대의 요구인 야권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주당 통합수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민통합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주당원의 섬세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통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적 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통합을 통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통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모든 역량을 쏟아 성공적인 협상을 이뤄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시대 정신을 담은 통합안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합수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그동안 통합 논란 과정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물질



조정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통합수임위원회는 통합정당의 명칭, 강령과 당헌, 지도부 선출 관련 사항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통합당 통합수임위원회와 오는 18일까지 협의 결정한다.

민주당 수임기구 간사는 통합 대의협상단을 이끌어온 조정식 의원이 맡았으며 박병석·최규성 의원, 박양수 전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현주 대구 북구 갑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민통합당 수임위원회는 이용선 대표를 비롯, 상임운영위원인 박상필, 이승환, 정운재, 오종식, 유시춘, 최민희 위원으로 구성됐다. 양당 수임위원회 합동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화학교’ 다룬 영화 도가니 국민 공분 불러

장애인·아동 성폭력 방지법 제정

지난 9월22일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05년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시작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는 가해자인 인화학교 전 교장과 교사가 지난 200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가 전국민의 공분을 이끌어 내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후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를 재수사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경찰은 급기야 지난 29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총 40명을 재수사해 12명을 형사입건하고, 기판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등으로 1차 수사를 끝냈다. 그리고 최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육의 5·18
- 5 야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근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이사장 등 인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2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광주시도 지난달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서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대표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 말 국회는 일명 ‘도가니 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난 7년여의 세월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인화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이번 인화학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되돌아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와 함께 ‘도가니’사태가 마무리됐지만 무렵 광주일보가 집중보도한 ‘장흥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한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지적장애여성을 군것질 거리로 유인해 착사, 컨테이너 등에서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은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장흥사건은 성범죄 시작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사회의 장애여성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누구 맘대로 ... ??

www.hufs.ac.kr /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

서울캠퍼스 Minerva Complex

지하 3층~지상 3층의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겸 대강당과 국제회의장, 강의실, 세미나실, 피트니스센터 등 깨끗하고 편안한 최첨단 시설로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글로벌캠퍼스 제2기숙사

총 5개 동 1,730여명 수용규모의 최신 시설과 English Zone을 신설. 원어인 강사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365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세상을 움직일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 2011.12.22(목) 09:00 ~ 12.27(화) 17:00 글로벌캠퍼스 : 2011.12.23(금) 09:00 ~ 12.28(수) 17:00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http://www.hufs.ac.kr
입학문의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 02) 2173-2076~8 글로벌캠퍼스 입학관리팀 : 031) 330-4399

한국외대, 2012학년도 입학 장학금 확대

- “수능1등급 장학금” 3개영역 1등급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캠퍼스별 수능성적 우수자 장학생 2배로 확대
- “7+1 파견학생 장학금” 신입생 전원 대상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

한국외국어대학교

QR Code